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20. 1. 28. (화), 10: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 【보고사항】

1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현황 보고

## 【심의사항】

2 「원주 고려시대 남한강변 사원 도회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3 「양주 회암사지, 동아시아의 선종사원의 전형」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4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5 「충남 내포 권역의 천주교 유적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6 「부안 고려청자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7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8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 보고 사항



## 1.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현황 보고

### 가. 제안사항

기 등재된 세계유산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 나. 제안사유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및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등재 결정문>에 따라, 유산 주변에서 예정된 개발사업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 ◇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72항

172. 세계유산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이 협약에 근거해 보호 중인 지역에서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복원사업이나 신규 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허가하는 경우 그 의도를 사무국을 통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통지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가령 특정 사업에 대한 기본 문서 작성 전) 또는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 위원회가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 '18.7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등재시 권고사항

(이코모스 평가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을 포함해) 본 연속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찰 경내 모든 신규 건설사업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72항에 따라 세계유산센터에 알림

\* 이코모스 평가보고서의 언급 내용 : 마곡사(승려들이 임시 사용하는 샵시설 교체)와 대흥사(국방에 있어 절의 역사적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새 단층건물), 법주사(사리각의 원 위치를 밝히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발굴에 이어 건물 한 동 신축)

다. 대상

유산명	사업명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 공산성)	제2금강교 건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공주 마곡사)	금어원 건립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보은 법주사)	세존사리각 복원
	성보박물관 건립
경주역사지구	동궁과 월지 복원 및 현장박물관 건립

심 의 사 항

## 2 「원주 고려시대 남한강변 사원 도회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 가. 제안사항

「원주 고려시대 남한강변 사원 도회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잠정목록 신청 수요조사(2019.7월~10월)를 실시하였음
- 강원도에서 신청한 <원주 고려시대 남한강변 사원 도회(都會)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다.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라.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안)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발표자료 참조)

- 제시한 유산명칭 : 원주 고려시대 남한강변 사원 도회(都會) 유적
- 신청유산

연번	명칭(문화재명)	지정종별	지정일
1	홍법사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	1984.6.2.
2	법천사지	사적 제466호	2005.8.31.
3	거둔사지	사적 제168호	1968.12.19.
4	홍원창	미지정	

### ○ 등재기준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10세기-11세기 고려시대 남한강 수운로에 입지한 강변사찰 도회의 원형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연속유산

### 3.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 가. 제안사항

「양주 회암사지, 동아시아의 선종사원의 전형」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잠정목록 신청 수요조사(2019.7월~10월)를 실시하였음
- 경기도에서 신청한 <양주 회암사지, 동아시아의 선종사원의 전형>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다.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라.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안)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발표자료 참조)

- 제시한 유산명칭 : 양주 회암사지, 동아시아의 선종사원의 전형
- 신청유산

연번	명칭(문화재명)	지정종별	지정일
1	양주 회암사지	사적 제128호	1964.6.10.
2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귀부)	보물 제387호	1963.9.2.
3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보물 제388호	1963.9.2.
4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 석등	보물 제389호	1963.9.2.
5	지공선사부도및석등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9호	1974.9.26.
6	나옹선사부도및석등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0호	1974.9.26.
7	무학대사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1호	1974.9.26.
8	회암사지부도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2호	1974.9.26.
9	양주회암사지공선사부도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5호	2004.11.29.

○ 등재기준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13~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선종의 전통을 건축공간의 형태로 증명하며, 또한 고고유산으로서 선종의 독특한 전통과 가치를 건축적으로 드러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추고 있음

## 4.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 가. 제안사항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星州 世宗大王子 胎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잠정목록 신청 수요조사(2019.7월~10월)를 실시하였음
- 경상북도에서 신청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星州世宗大王子胎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다.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라.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안)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발표자료 참조)

- 제시한 유산명칭 :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星州世宗大王子胎室)
- 신청유산

연번	명칭(문화재명)	지정종별	지정일
1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사적 제444호	2003.3.6.

- 등재기준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은 태가 갖고 있는 생명의 상징과 장태문화의 보편적 성격 속에서 석물조형을 이용한 태 봉안을 국가의례화한 독특하고 의미 있는 유산임.

이 유산은 장태문화가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중 조선 왕실에서 생명 탄생을 축복하고 왕실과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의 국가 의례로 정착된 후 오늘날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중요한 메신저가 되고 있음.

- 기준(iv) :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한국 태실 조성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임. 아기태실 조성 초기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음. 아기태실이면서도 지상에 가봉태실 석물인 중동석(中童石)을 갖추고 있음은 과도기의 태실 조성 방식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으로서 태실 조성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임. 특히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은 한 곳에 19기의 태실이 군집한 유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5. 「충남 내포 권역의 천주교 유적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 가. 제안사항

「충남 내포 권역의 천주교 유적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잠정목록 신청 수요조사(2019.7월~10월)를 실시하였음
- 충청남도에서 신청한 <충남 내포 권역의 천주교 유적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신규신청

### 다.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라.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안)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발표자료 참조)

- 제시한 유산명칭 : 충남 내포 권역의 천주교 유적군
- 신청유산

연번	유산명칭(지정문화재명)	지정종별	지정일
1	예산 여사울 이존창 생가터	시도기념물 제177호	2008.12.22
2	당진 솔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사적 제529호	2014.9.26
3	당진 신리 다블뤼주교 유적지	시도기념물 제176호	2008.12.22
4	서산 해미 순교성지(서산 해미읍성)	사적 제116호	1963.1.21
5	홍성 홍주순교성지(홍성 홍주읍성)	사적 제231호	1972.10.14
6	당진 합덕성당	시도기념물 제145호	1998.7.28
7	아산 공세리성당	시도기념물 제144호	1998.7.28
8	서산 동문동성당 상홍리공소	국가등록문화재 제338호	2007.7.3

○ 등재기준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18세기 중엽 서화에 대한 학문적 탐구에서 촉발되어 자발적으로 수용된 천주교의 일반성과 내포권역의 차별화 되는 지역성을 보여주는 종교 유산임. 신청유산은 천주교가 내포지역의 민중종교로 정착하면서 혹독한 박해를 견디며 탁월한 종교문화를 창출한 내포지역의 독보적 종교적 전통에 대한 증거를 보여줌

- 기준(vi) :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그리고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세계유산위원회는 이 기준은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청유산은 천주가사라는 한국 천주교의 독특한 전통 이외에도 문학과 음악이 결합된 '연도(煉禱)'와 판공성사라는 내포권역만의 차별화되는 종교전통을 보여줌

## 6. 「부안 고려청자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 가. 제안사항

「부안 고려청자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잠정목록 신청 수요조사(2019.7월~10월)를 실시하였음
- 전라북도에서 신청한 <부안 고려청자유적지구>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신규신청

### 다.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라.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안)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발표자료 참조)

- 제시한 유산명칭 : 부안 고려청자유적지구
- 신청유산

연번	유산명칭(지정문화재명)	지정종별	지정일
1	부안 유천리 요지	사적 제69호	1963.1.21
2	부안 진서리 요지	사적 제70호	1963.1.21

#### ○ 등재기준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12~13세기 전성기 고려청자의 최대 생산지로 대단위 요업을 위한 자연 지리적 입지 환경, 가마 구조의 변화를 통한 청자제작 기술의 발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요업의 쇠락 과정, 조창과 조운로를 통한 고려의 청자유통 체계를 유기적으로 보여주는 독보적인 물적 증거임

## 7.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 가. 제안사항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에 근거, 잠정목록을 보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등재목록 신청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 서울특별시에서 신청한<한양도성, 서울의 옛 수도성곽(Hanyangdoseong, the Old Capital Wall in Seoul) / 이하,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9조

-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산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4. 보존 관리 계획

### 다. 신청 및 유산 심의 경과

- 신청 수요 조사
  - 대상 : 잠정목록 관련 광역지자체
  - 기간 : 2019.10.1 ~ 2019.12.13
  - 결과 : 2건 접수
- \* 한양도성, 서울의 옛 수도성곽(잠정목록명 : 한양도성)
- \* 반구대 암각화(잠정목록명 : 대곡천 암각화군)

### ○ 한양도성 등재추진 경과

- 2012.11월 : 잠정목록 등재
- 2014.11월 : 2016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대상 선정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제2차 회의 / 2014.11.4.)

- 2016.1월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2016.3월~2017.2월 : 현지조사, 추가자료 제출, 이코모스 패널회의 및 당사국 면담
- 2017.3.9. : 이코모스 제2차 패널회의 결과 '등재불가(Not be Inscribed)' 권고 결정

- 등재기준 iii, iv에 대해 유산관리 전통과 건축유형 면에서 전 인류 역사상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지 못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지 못함
- 이코모스 제1차 패널에서 권고한 유산구역 확대를 수용하였으나, 여전히 완전성을 입증하고 있지는 못함 (사적지정구역+유실구역을 모두 연결 필요)

- 2017.3.21. : 등재신청 철회 ⇒ 이후 "잠정목록" 지위 유지 중
- 2019.1.24. : 우선등재목록 선정심의 / "보류"

※다음 내용을 보완한 후, '19년도 하반기 이후 재심의함

- 1) 1차 등재 신청 과정에서의 심사 지적사항
- 2) 성곽 현황, 축성기술 등 기초조사
- 3) 국내외 유사유산 비교연구
- 4) OUV 명확화
- 5) 문화재위원회 및 전문가 검토 의견

#### ○ 관련 심의사항

- 2018.4.26 :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심의/ "부결"

※한양도성과의 연속유산으로 검토가 필요함

#### 라. 우선등재목록 선정 절차 및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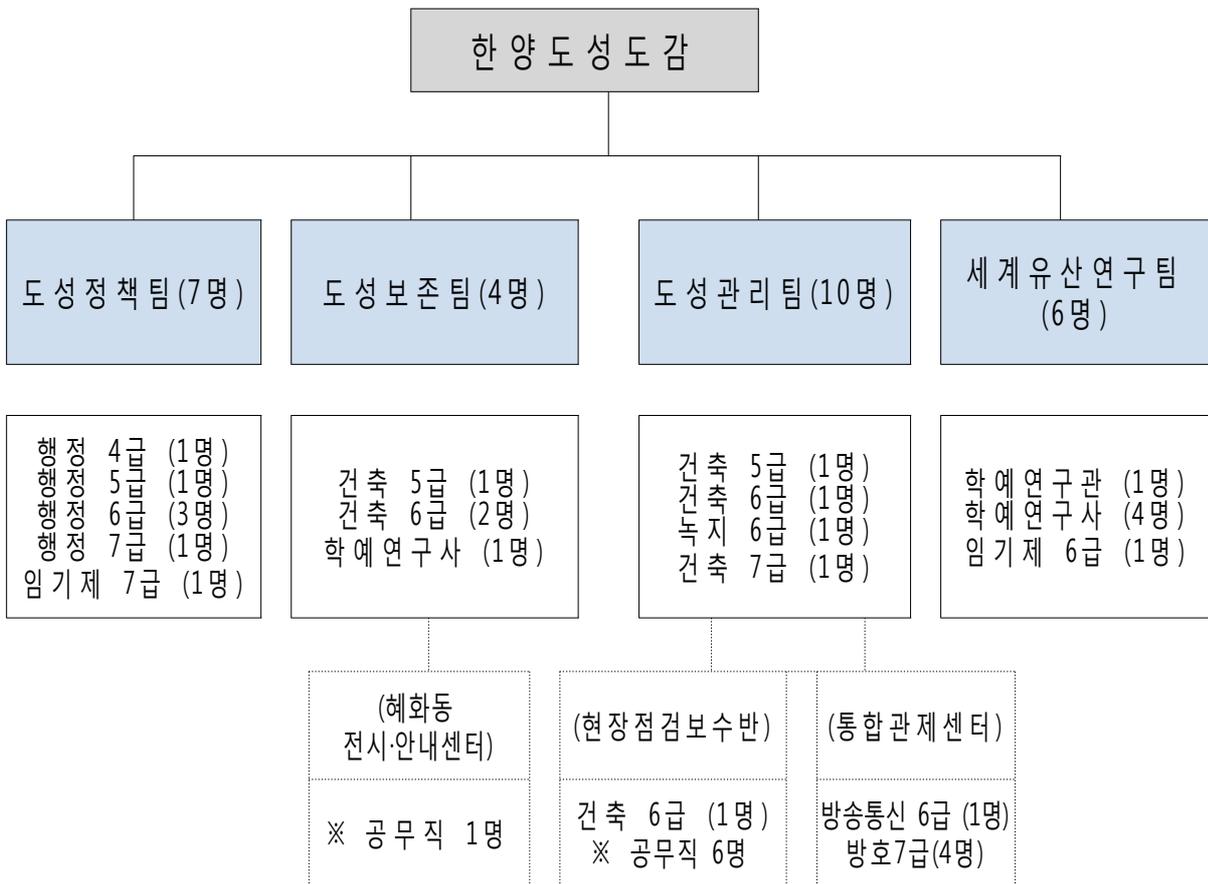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우선등재목록 선정 여부 결정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한양도성」 신청내용(상세 내용은 신청지자체 설명자료 참조)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가) 등재신청 추진체계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33명)
- 보존관리에 대한 위원회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12명)
  - 한양도성 행정협의회(17명)
- 등재 추진 조직 : 한양도성도감
  - 등재추진을 위한 과단위 실무 부서로 2012년 9월 28일부터 한양도성도감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세계유산 등재추진은 도성정책팀이 총괄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연구팀은 신청서 준비작업을 진행함. 도성보존팀과 도성관리팀은 유산가치 유지를 위한 정책 이행과 정비사업을 하고 있음
  - 구성 : 1과 4팀(1반, 2센터) 27명 (인력, 팀별 주요 업무 : 설명자료 참조)



## 나)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 연구총괄 및 OUV도출, 비교유산, 역사, 유산설명 및 축성기술, 보호관리, 세계유산분야 외부참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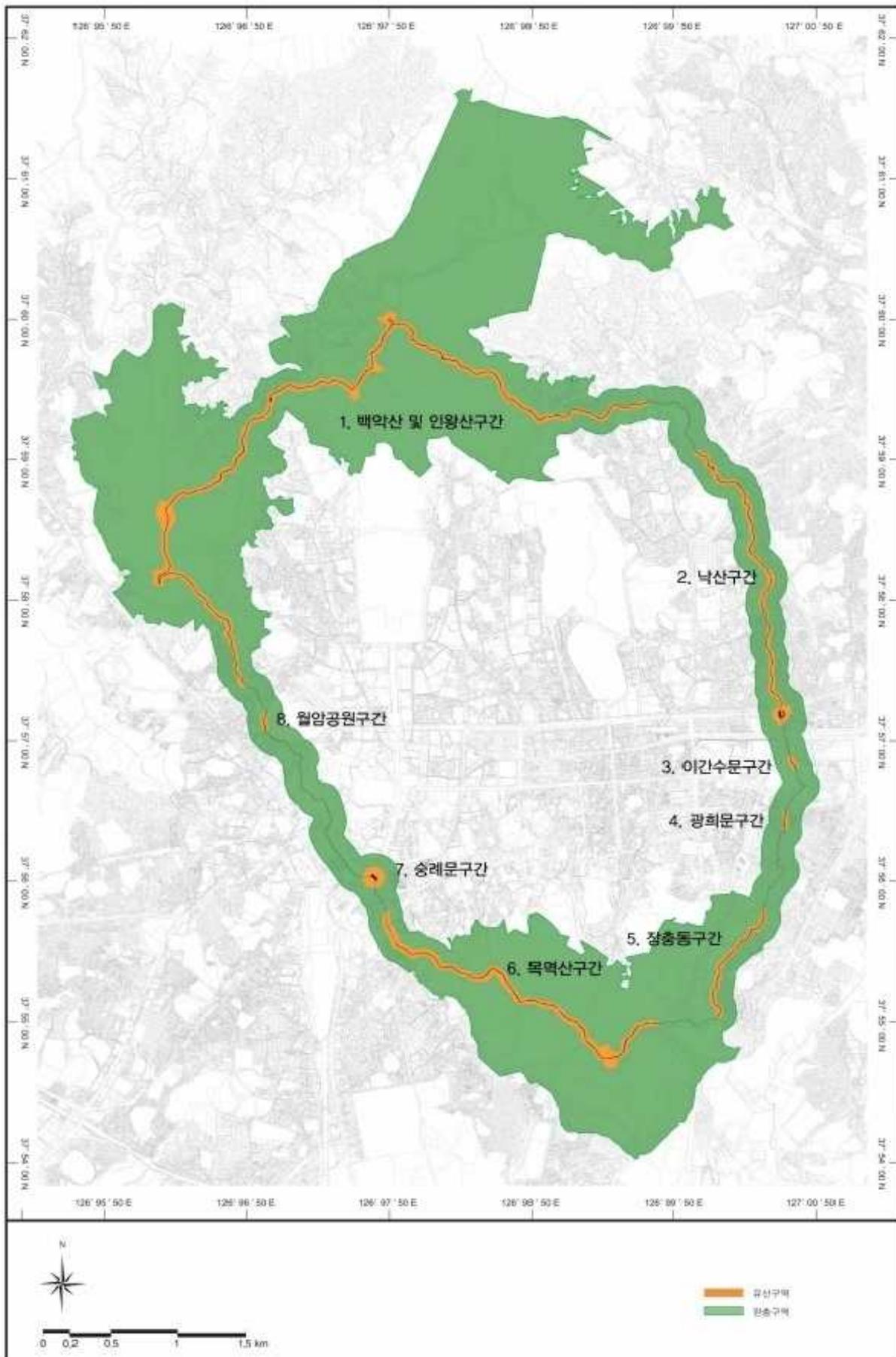
##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경계 설정 방향
  - 한양도성은 산지와 구릉지, 평지를 따라 축조되었고 총길이는 18.6km임
  - 현재 평지 구역은 일제강점기에 도로 및 시가지로 편입되면서 훼손되어 지상부에는 14.5km가 남아 있음
  - 신청유산은 지상부에 남아 있는 구간과 지하매장 구간을 유산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변 자연녹지지역과 일부 주거지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였음
- 유산구역 현황
  - 한양도성은 본래 단일유산이지만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도시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몇 군데 단절 부위가 생겨 형태상 8개 구간으로 분절되었음

### [유산구역 현황]

일련 번호	구성구간	지역/지구	중앙점좌표	신청구성요소 유산구역면적 (ha)	완충구역면적 (ha)
1	백악산 및 인왕산	종로구,서대문구 ,성북구	E126°58'35" N37°59'30"	32.84	1052.94(ha)
2	낙산	성북구,종로구	N37°58'81" E127°00'31"	9.13	
3	이간수문	종로구	N37°34'04" E127°00'39"	0.5	
4	광희문	중구	N37°33'50" E127°00'36"	0.48	
5	장충동	중구	N37°33'17" E127°00'19"	3.96	
6	목멱산	중구,용산구	N37°33'05" E126°59'24"	12.65	
7	승례문	중구	N37°55'98" E126°97'49"	1.93	
8	월암공원	종로구	N37°34'14" E126°57'58"	0.57	
총계	1,115(ha)			62.06(ha)	1052.94(ha)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도면] <구간별 자료 등재신청서(초안) 참조>



### 3)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 및 계획

○ 등재신청기준 : 기준(iii), 기준(iv)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14세기 말 동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축성된 수도의 성곽으로, 중앙집권적 국가동원체제와 독보적인 관리시스템이 성곽건설에 적용된 특출한 증거이다.

전국의 민정을 동원하여 단기간에 도성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인 공사 관리시스템 때문에 가능했다. 성돌에 새겨진 수백 개의 각자는 중앙집권적 국가동원체제, 성곽수축기술과 관리시스템의 존재, 변화, 지속을 입증한다. 또한 시기별 여러 성벽형태는 초축 이후 오백여 년 동안 변화해 온 축성기술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물적 증거이다.

- 기준(iv) :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14세기 말 한반도에서 출현한 독특한 성곽유형으로, 산성과 도성이 단일선형의 일체화된 형태로 구현된 한반도 수도성곽의 가장 탁월한 사례이다.

신청유산은 수도의 경계로 구획된 도성과 방어를 위한 산성이 완벽하게 일체화된 독창적인 도성모델로서, 새로운 왕조의 시작과 함께 수도를 알리는 상징물이 되었다.

## 8.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 가. 제안사항

「대곡천 암각화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에 근거, 잠정목록을 보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등재목록 신청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 울산광역시에서 신청한 <대곡천 암각화군(신청 유산명 : 반구대 암각화)>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9조

-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산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4. 보존 관리 계획

### 다. 신청 및 유산 심의 경과

- 신청 수요 조사
  - 대상 : 잠정목록 관련 광역지자체
  - 기간 : 2019.10.1 ~ 2019.12.13
  - 결과 : 2건 접수
  - \* 한양도성, 서울의 옛 수도성곽(잠정목록명 : 한양도성)
  - \* 반구대 암각화(잠정목록명 : 대곡천 암각화군)
- 대곡천 암각화군 등재추진 경과
  - 2010.1월 : 잠정목록 등재

**라. 우선등재목록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우선등재목록 선정 여부 결정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대곡천 암각화군(신청명 : 반구대 암각화)」 신청내용(상세 내용은 신청지 자체 설명자료 참조)**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b>울산광역시</b>		
<b>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b>	<b>울주군 문화관광과</b>	<b>울산박물관</b>
<b>문화유산담당</b>	<b>문화재담당</b>	<b>세계유산등재 학술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구대 암각화 보존</li> <li>·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홍보 및 각종 세미나 개최</li> <li>· 주민협력 및 지원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유지관리</li> <li>· 반구대암각화 방재 및 재난관련 업무(국가안전대진단, 소방훈련, 안전점검, 무인경비 및 CCTV 관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li> <li>·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업무 추진</li> <li>·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학술지 발간, 국제교류전 추진</li> <li>· 세계유산등재 학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li> </ul>

- 학술자문위원회
  - 8명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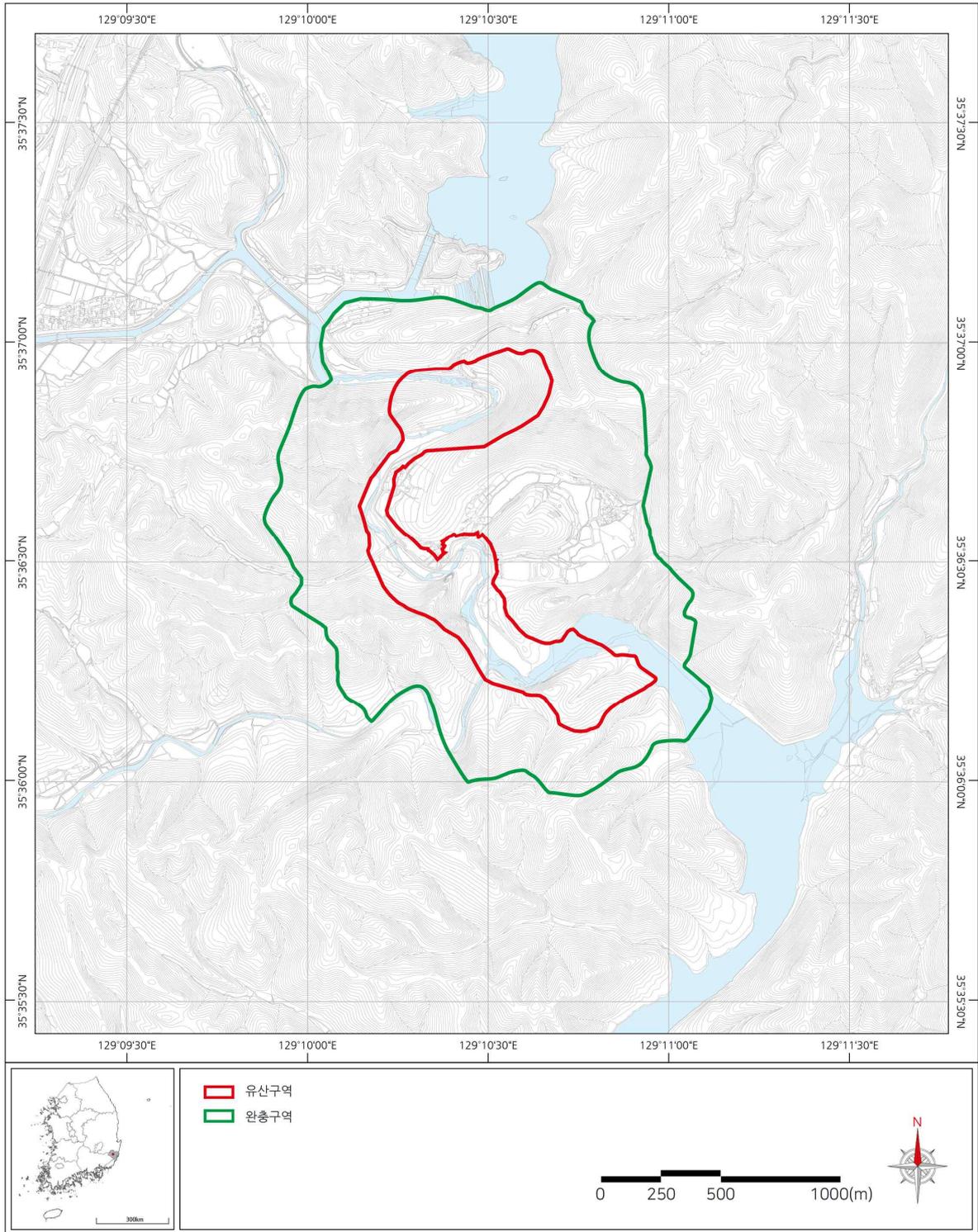
##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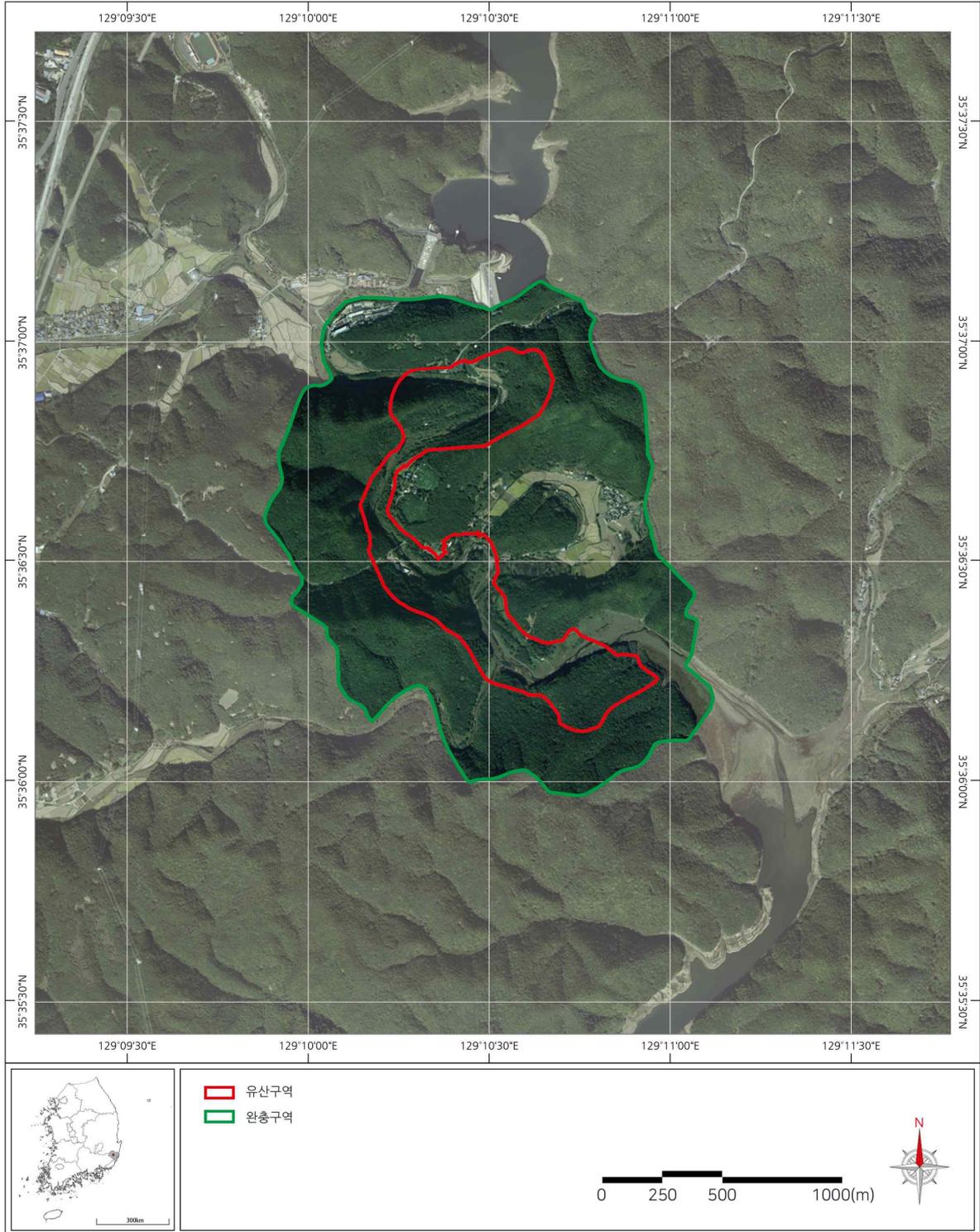
###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경계 설정 방향

- 등재구역은 대곡리 암각화(국보 제285호)와 천전리 암각화(국보 제147호), 반구대 주변의 인문·자연 경관을 포함하고 있음
- 등재구역 범위는 반구대를 중심으로 대곡천 상류 천전리 암각화에서 하류 대곡리 암각화로 이어지는 계곡에 해당함
- 대곡리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는 「문화재 보호법」, 그리고 반구서원 유허비가 있는 반구대 명승지는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반구대 명승지는 국가명승지정을 통해 신청유산 전체 구역이 「문화재 보호법」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임
- 완충구역의 경계는 암각화 유적의 특성을 고려해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유산의 조망권역과 수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유산구역 현황]

일련 번호	유산명	중앙점좌표	신청구성요소 유산구역면적 (ha)	완충구역면적 (ha)
1	대곡리 암각화	N35°36'14.69" E129°10'41.50"	61.95(ha)	214.94(ha)
2	천전리 암각화	N35°36'51.38" E129°10'30.48"		
3	반구대 명승지	N35°36'30.42" E129°10'26.39"		
총계	276.89(ha)		61.95(ha)	214.94(ha)





### 3)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 및 계획

○ 등재신청기준 : 기준(i), 기준(iii)

- 기준(i) :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하여야 한다.

반구대 대곡리 암각화는 거대한 수직 절벽에 많은 바다와 육지동물, 생활상이 표현된 회화적 조각품이다. 20여 종에 이르는 많은 동물의 생태적 특징과 일정한 구도 하에 새겨진 선사시대 해양수렵 집단의 미적관념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뛰어난 걸작이다.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반구대 대곡리 암각화는 단일 암면에 20여 종에 이르는 많은 육지와 바다 동물이 함께 표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신석기시대 고래 사냥꾼에서 청동기시대 농경민, 신라시대 왕족, 조선시대 선비로 이어지는 시대와 관념을 달리하는 미적 표현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집약하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는 유산이다.